

#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 063-280-7100 / 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사회문화연구부 김형오 연구위원  
(063-280-7172, 010-9602-1455)
- **담 당** :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20년 10월 28일(수)부터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라북도 관광진흥을 위한 전략

**코로나-19 청정지역, 전라북도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안전·안심, 자연생태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 관광시장은 대외적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질병과 같은 재난, 위험 및 위기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전선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만 보더라도 인바운드 및 국내관광 시장은 크게 위축된 사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가 유발한 관광시장 위축의 규모와 정도는 과거 경험에 비해서 더 막대하다. 국제항공운송 노선 감축으로 인바운드, 국내관광 및 아웃바운드까지 영향을 미쳐 전 관광서비스분야에 걸쳐 관광공백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 성장세를 보인 국제 및 국내관광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이하 포스트코로나)에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보다 야외 지향적이고 바이러스프리(Virus-free)에 적합한 관광목적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혼잡과 밀집보다는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단체보다 가족과 같은 소규모 그룹 단위로 해외보다 국내를 방문하려는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 코로나 이후 큰 변혁기를 맞이할 내수관광시장 수요에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북관광 진흥방향』이라는 주제의 이슈브리핑(232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된 국내관광 시장의 여건과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심되는 사람 중심 관광목적지’라는 테마로 전라북도의 특화된 관광브랜드를 새로이 재정립하자고 제안했다.
- 이슈브리핑(제232호)은 ▲ 도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관광 환경을 구축하고, ▲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 전북여행의 특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 으뜸 관광목적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특히 코로나로 인해 근거리, 자연생태자원, 야외활동, 건강·치유 중심 콘텐츠, 가족 등이 주된 국내관광 키워드로 주목받음에 따라 전라북도 내 숨은 관광지를 재발견하고, 생태관광과 같은 전북의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여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내수 관광시장의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 김형오 박사(연구책임)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국민의 이동권이 제한되기 전에는 여행의 일상화로 개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소규모 콘텐츠, 감성 소비 등 소확행을 우선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내수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이 기대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안심과 같은 키워드의 관광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한다.
- “코로나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발된 개개인의 심적 불안감, 우울 및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국내관광으로 눈길을 돌려, 내수관광시장 회복이 예상된다. 소규모 콘텐츠, 감성소비와 같은 이전의 트렌드 전망은 유지되겠지만, 안전과 안심, 비대면과 같은 새로운 키워드의 소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며, “전라북도는 특화 생태자연자원, 코로나-19 청정지역이란 지역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북관광의 진흥기를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한다.